

#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노동과정의 변화

박수민

# 연구문제 및 방법

---

- 쫓기는 배달 노동자 – 재촉하는 상점 – 기다리는 손님  
하나의 앱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  
같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정보,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
- 배달의 민족? 오래된 산업, 새로운 기술
- 플랫폼이라는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로컬의 노동시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 
기술중심의 경제는 노동과정,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
- 노동과정론 + 시간과 공간 + 기술
-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참여 연구(2019~)

# 연구의 구성 및 주요 주장

---

- 이미 자리잡은 특고라는 노동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을 키워왔고, 수익성을 확보
- 시공간 통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이 자본과 노동이 서로를 견제하고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
-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혼종적 작업장(네트워크+물질)이 만들어짐에 따라, 사회의 공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데이터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이 육체노동자에게도 나타남

# 불확실성

---

불확실성은 고용상태가 아니라 노동과정 그 자체에서 만들어지며, 노동과정, 일상생활에 두루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치나 규범의 변화를 추동한다

-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
- 수입의 불안정성/예측성
-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삶의 질
- 가치와 규범의 변화 – 시간의 지향(orientation)이 현재 중심으로 이동

# 노동과정통제, 알고리즘, 시공간

---

플랫폼 배달노동 근대 산업주의의 선형적 시간관, 작업장이라는 물질적 공간을 벗어남

- 예측(Pre-emption) 기술에 기반한 경제/행동 모델(Andrejevic et al., 2020)  
근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문화의 기초인 선형적 시간(Thompson, 1967)과 배치
- 이동노동은 계급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을 띠며, 물질성에 대한 고려(Cohen, 2010)  
Work while mobile, Mobility as work, Mobility for Work
- 배달노동자들의 시공간은 행위성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수행적(정예슬, 2022; Zheng & Wu, 2022, Heiland, 2021)
- 작업장은 자본가의 노동통제와 노동자의 이에 대한 대응이 경합하며 변화하는 각축장 이자, 계속 변화하는 관계 (Edwards, 1979)

# 기술을 통한 수량적 유연화의 극대화 : 시간

---

실시간으로, 건마다 노동조건이 변화하는 상황은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관계를 일회적인 것으로 변모시킴

- 기업의 목표는 노동가용성(Availability) 확보  
빠른 배달을 위해 대기 중인 라이더
- 실시간 변동요금제와 미션(계절, 시간, 장소)의 결합을 통해 유동성 확보
- 보너스가 주어지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
노동의 대가, 휴면 상태, 예상 물량, 개인 프로파일 등
- 전업 / 부업의 구분이 이루어짐

# 기술을 통한 수량적 유연화의 극대화 : 공간

---

지역별 가격 차별화를 통해 노동자의 공간적 밀도를 조정하고, 그 결과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짐

- 실시간 변동요금제와 히트맵, 지역별 프로모션을 결합하여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유도
- 주문 물량은 절대적으로 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음
- 배달이 많은 지역을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

# 정보비대칭이 키우는 불신

---

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 수량화 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평가방법, 평가에 대한 상벌의 적용이 공개돼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져 불신을 키움

- 수락률
- 고객평가
- 배차관리



# 극단적 유연화의 결과

---

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동과 자본의 시도가 상대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낳는 과정이 반복되며 노동과 자본의 구조적 적대주의가 강화

- 멀티호밍, 게이밍 등을 통한 대응
  - 사회적 관계의 일회화
  - 기존 노동규범의 붕괴 (선형적 시간 축적 구조 붕괴) : 상호책임, 신뢰, 성실
- ➔ 불확실성의 비용이 노동-자본 모두에게 급상승 ,  
구조적 적대주의(Structural Antagonism) 강화

# 변화하는 고용믹스

---

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믹스 전략을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 하락

- 노동강도 강화 vs. 불확실성
- 기업의 고용믹스 전략

쿠팡 : 쿠팡친구 (직고용: 정규직, 기간제)

쿠팡 플렉스 (클라우드 소싱), 쿠팡 킥플렉스 (지입제, 하청)

쿠팡이츠: 쿠팡이츠 파트너 (클라우드소싱),

이츠친구 (직고용, 기간제, 종료)

이츠 플렉스 (협력사 통한 인적 통제 + 앱을 통한 기술통제)

우아한 청년들 : 배민 라이더스 (지입제 하청)/ 배민 커넥트 (클라우드 소싱)

딜리버리N (직고용)

# 마무리

---

-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은 실시간 변동요금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공간에 대한 통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,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, 일관되지 못한 평가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키움
- 특히, 시장에서의 관계가 일회성을 띠기 때문에 성실, 헌신과 같은 노동윤리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짐
- 노동자가 여러 앱을 오가거나, 알고리즘의 헛점을 파고들면서 순간적인 이익을 최대화 하는 대응을 전개함에 따라 자본 역시 높은 불확실성의 비용을 치르게 되며, 구조적 적대주의가 강화됨
- 불확실성의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, 새로운 종류의 고용방식이 나타나고 있음